

금서\_

## 니들 이런 책 읽으면 혼난다



오늘의 우리사회가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기 쉽다. 한국사회, 참 잘 안 바뀐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위 ‘이념서적’ 단속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 이번에는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과 19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 책을 온라인을 통해 팔아온” 인터넷 헌책방 주인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걸려들었다.

또 책방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 서점에서 북한 책을 산 사람들까지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2007년 5월 4일자). 그런데 신문기사가 전하는 북한 소설의 내용은 그리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꽃파는 처녀』는 일제 강점기에 좁쌀 두말의 빛 때문에 온 가족이 지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겪는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이며, 『민중의 바다』는 같은 시기 북간도 지방에서 항일투쟁을 하다 학살당한 남자의 아내가 자식들을 항일혁명투사로 키우고 자신도 항일투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그렇지만 엄연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조항을 어겨서 단속했다면, 굳이, 달리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이에 앞서 경찰이 “그 서점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으며, 『해방전후사의 인식』(출여『해전사』), 『철학에세이』(출여『철세』),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 등 1980년대 널리 읽혔던 사회과학 책 170여종 200여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거둬들었다”는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사실이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은가. 『해전사』와 『철세』에 이적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책을 펴낸 한길사와 도서출판 동녘의 대표를 잡아들여라! 그런 혐의가 있는 필자들과 저자도 마찬가지다. 독서환경과 이념지형의 '사소한' 변화와는 상관없이 책을 개정하고쇄수를 늘리고 있는 『철학에세이』를 유통시키는 전국의 모든 서점 관계자들 역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도서관에는 이 책들을 치우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



### ‘금서’가 키운 한국의 지성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딱해서다. 입을만한 책은 대저 ‘금서’의 딱지가 붙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예를 찾으려 멀리 갈 것도 없다. 비근하게는 <경향신문> 기획연재물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의 일환인 ‘우리 사회에 큰 영향 준 국내외 저술’ 설문조사 결과(2007년 4월 30일자)가 있다.

지식인들이 꼽은 1987년 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내외 서적은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금서목록에 올랐던 책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설문대상자 74명 중 67명이 응답(복수 응답 111명)한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국내저술’은 금서의 비중이 압도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 한길사) 23명,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창작과비평사) 15명,

『태백산맥』(조정래, 한길사/해냄) 10명으로 대표적인 ‘이념도서’ 세 권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또,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조정래, 돌베개)이 네 사람의 추천을, 『이상과 이성』(리영희, 한길사)은 두 사람의 추천을 받았다.

책을 처음 기획할 때 한길사 김언호 대표가 ‘한 5천부 나가려나’ 예상했다는 『해전사』는 첫 권의 성공에 힘입어 6권까

지 나오면서 40여만 부가 팔린다. 김언호 대표의 회고다. “그 책에 실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진덕규, 임종국 같은 필자들도 대부분 이데올로기와 관계없는 분들이었죠. 그런 책인데도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1차적으로 독자들이, 즉 시대가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정말 대단했어요. 10·26이 터져 책이 판금될 때까지 열흘 만에 4,000권이 나갔으니... 판금됐다고 그 책을 안 읽었겠어요. 판금시키면 오히려 복사본이 더 많이 나돌던 때였죠.”

『전환시대의 논리』(1974)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미국 외교정책의 추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중국사회주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해 리영희 선생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젊은이들에게 ‘사상의 은사’로 만든다. 번역서로는 한동안 금서의 명예를 썼고, 어찌면 지금까지도 쓰고 있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론과실천/비봉출판사) 18명과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청사/일월서각) 16명이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준 책 1위와 2위로 뽑혔다.



## 금지된 책의 문화사

이런 사정은 다른 나라라고 다를 게 없다. 『100권의 금서』(니컬러스 J. 캐롤리드스·마거릿 볼드·돈 B. 소바 지음, 손희승 옮김, 예담, 2006) 목록을 봐도 그렇다. 이 책은 서양에서 정치적, 종교적, 성적, 사회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탄압받은 책들을 골라서 각권의 내용 요약과 함께 수난의 역사를 되짚는다. 그 면면을 보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저작이 대부분이다.

1부에 놓인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은 작품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스토 부인의 『툼 아저씨의 오두막』, 레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리처드 라이트의 『깜둥이 소년』,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등이 있다.

커트 보니것의 『제5 도살장』은 20세기의 마지막 25년간 매우 심한 검열을 당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운영자, 사서, 성직자들이 나서서 보니것의 작품을 교과과정에서 제외하거나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외설성, 저속한 문체, 폭력성, 부적절함, 화장실 유머, ‘성인용’ 표현, 반기독교적 내용, 비도덕적인 주제, 잔인함, 너무 현대적이고 비애국적인 전쟁 묘사 등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금서-학교와 공공도서관의 금서 편람』이라는 책에 따르면, 『제5 도살장』은 1991년 아이다호 주 플러머에서 신성모독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해 폭로한 미 『국방부 보고서-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1945년부터 1967년까지』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니와 『전환시대의 논리』 첫머리에 있는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체제나 정부는 반드시 비판에 견딜 수 없는 체제와 정부이다. 그러기에 비판을 봉쇄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개선과 향상이 없고 그 결과는 더한층의 타락이며, 타락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은 탄압에 호소하는 악순환 속에 침체할 수밖에 없다.”

## 바티칸 ‘금서목록’

로마 교황청의 금서목록은 근세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끈질긴 종교 검열 수단이었다. 400년이나 이어진 바티칸 금서목록은 1966년에야 없어졌다. “1948년 시작되어 1966년에 발간된 마지막이자 42번째 목록까지 모두 4,126권이 수록되어 있다. 17세기 이전에 출간된 작품이 1,331권, 18세기 작품이 1,186권, 19세기 작품이 1,354권, 20세기 작품이 225권에 이른다.”

여기에는 서양을 대표하는 작가와 사상가의 고전이 다수 들어있다. 바티칸 금서목록에 자신의 작품이 포함된 고전 저자는 벤담, 베르그송, 콩트, 디포, 데카르트, 디드로, 플로베르, 홉스, 흄, 칸트, 로크, 밀, 몽테뉴, 몽테스키외, 파스칼, 루소, 상드, 스피노자, 스탕달, 볼테르, 졸라 등이다. “가톨릭교회는 ‘금서목록’이 폐지된 후 이단적인 신학자들의 글을 제재하거나, 그중 몇몇 가톨릭을 믿는 저자들에게

정설에 맞는 글을 쓰도록 압력을 가했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1, 2권이 간행된 직후인 1580년과 그 이듬해 첫 번째 탄압을 받는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로마에 들른 몽테뉴는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환대를 받지만, 나중에 교황청 성성(聖省, 가톨릭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교황청 행정기구)으로 불려가 앞으로 인쇄할 『수상록』은 일부 대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얘길 듣는다.

“검열을 맡은 신학 교수 시스토 파브리리는 프랑스어를 읽을 줄 몰라서 프랑스인 수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운’이라는 단어를 남용한 것, 기독교를 적대시한 4세기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를 옹호한 것, 이교도 시인을 칭송한 것, 기도할 때는 나쁜 충동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 고문을 비판한 것(“평화로운 죽음이 아니라면 잔인함 그 자체다”), 어린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해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 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몽테뉴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난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수정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지적을 받은 어느 대목도 고치지 않았다. 『수상록』 완결판은 17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1640년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수상록』을 금서로 지정한다. 1676년에는 교황청이 몽테뉴의 작품에다 ‘어떤 언어로도 인쇄할 수 없는’ 금서로 낙인을 찍는다. 『수상록』은 300년 가까이 교황청 금서목록 신세를 진다.



## 『율리시스』를 허하라

현대의 고전으로 통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내용이 야하다는 이유로 펍박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22년 미국 법원이 이 책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자, 미우정국은 『율리시스』 500부를 불태운다. 이보다 한해 앞선 법정 다툼에서도 『율리시스』의 일부를 연재하여 잡지를 몰수당한 잡지사가 꽤소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에서 『율리시스』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길이 열린다. “1932년 랜덤하우스로 보낸 책 한 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의해 압수되었다. 그때 랜덤하우스는 미국에서 이 책을 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끼어들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랜덤하우스 창립자 베네트 서프의 자서전 『내멋대로 출판사 랜덤하우스』(정혜진 옮김, 씨앗을뿌리는사람, 2004)를 보면, 그것은 랜덤하우스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일이다.

당시 미국 법정에선 외부 권위자의 견해를 참고 진술로 채택하지 않았기에 베네트 서프는 편법을 쓴다.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글들을 끼워 넣은, 법정 증거물로 쓰일 ‘특별판’을 만들어 유럽에서 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여오기로 한다. 그런데 여행자가 한권씩 가져오는 『율리시스』에 대해선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 미국 세관 직원들의 통관검사가 그날 따라 더 느슨했다. 하여 『율리시스』 특별판 ‘배달’을 맡은 출판사 대리인은 책의 압수를 자청하기에 이른다.



재판에 이긴 랜덤하우스의 베네트 서프는 『올리시스』 특별판을 컬럼비아대학교도서관에 기증하면서 그가 사용한 전략을 설명하는 편지를 곁들였다. “저희가 애초부터 이 책을 한 권 가져오다가 세관에서 압수되게 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벌이는 방법을 택한 까닭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책을 한 권 가져오다가 걸리는 방법을 택하고 나니, 그 다음으로는 이 책이 어떻게든 무사히 반입되지 않고 반드시 압수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을 시켜서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과정을 거쳐 가며, 우리 책이 정부에 의해 확실히 압수되도록 만들었지요.”

아무튼 뉴욕 주 연방법원의 존 M. 울시 판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올리시스』는 음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비위를 상하게 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며 이미 말했듯이 보통 외설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지만, 외설 그 자체를 위해 쓰였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모든 단어는 각각 조이스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을 모자이크처럼 맞춰나가고 있다.”

## 책과 혁명의 함수관계

어떤 책을 일반 독자가 읽는 것은 순수하고, 의식 있는 대학생과 노동자가 읽으면 불온하다는 것만큼 어정쩡한 법적 잣대도 드물리라. 또 이것은 당국이 책에 금서와 이념도서의 굴레를 들씌우는데 책의 내용은 부차적 요소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버트 단턴은 『책과 혁명』(주명철 옮김, 길, 2003)에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셀러’를

다룬다. 단턴이 18세기 프랑스에서 잘 팔린 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인문과학의 새로운 분과학문인 책의 역사에 대한 탐구가 문학과 문화사 전반에 대한 안목을 넓혀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자가 책을 손에 넣는 과정과 제한적이긴 해도 수용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문화체계의 일부로 문학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적의 역사가 어떻게 의사소통의 역사라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또 다른 이유다. ‘금서가 구체제를 무너뜨렸나?’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 단턴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전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하니 말이다.

한국교원대 주명철 교수의 『서양 금서의 문화사-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중심으로』(길, 2006)는 『바스티유의 금서』(문학과지성사, 1990)의 전면개정판이다. 주 교수는 프랑스 혁명기의 일상생활을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의 세 측면으로 살펴보면, 구체제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려 한다.

“물론 독자가 이러한 변화를 금서의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서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다. 금서는 책의 역사에 속한 문화적인 구축물이며,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긴 해도, 책은 당대인의 정신자세를 반영하거나 정신자세가 변화하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